

속에서 개혁의 意志를 形成해낸다는 것은 중대한 政治挑戰이 된다. 中國의 改革政治가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黨指導部내의 保守와 進歩간의 葛藤 때문이다. 이러한 葛藤은 改革의 심화에 따라 增大되어 갔기에, 改革의 추진과 指導部の 갈등·변화간에는 일종의 函數關係가 있음을 암시 받는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문제점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政策決定集團의 政治·經濟의 路線상의 문제; 둘째, 政策執行 방법을 둘러싼 指導部の 凝集力 문제; 셋째, 推進 政策의 波及效果와 그에 대한 정권의 대응문제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中國의 體制改革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中國 共產黨 指導部내의 葛藤을 분석함으로써 中國 體制改革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改革進行 方向을 豫測해 보고자 하는 學問的 關心에 答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論究가 갖는 의미는 크다. 中國공산당은 黨章程이 규정짓고 있는 바 대로 中國의 영도핵심이다. 黨 指導部の 변화가 中國政治의 變化와 直結된다고 할 수 있다.¹⁾ 그러므로 黨指導者들의 對立 原因 糾明을 통한 黨 指導部の 변화 설명은 곧 바로 中國정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變化를 예측할 수 있게도 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原因 糾明의 결과에 따라 對立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恒常적인 것으로 判斷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鄧체제에 適用하면, 指導部 내의 主導權 변화가 개혁의 進路를 좌우한다고 預斷케 한다.

연구의 대상시기는 1978년 12월에 거행된 “11屆3中全會(中國共產黨第11屆中央委員會 第3次全體會議)”로부터 1989년 6월의 “天安門 事態”로 잡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1屆3中全會 이래 노선의 두 기본점인 四項 基本原則의 堅持와 改革·開放방침은 政治를 우선시하면서

1) 共產主義 體制內에서의 政治的 變化와 政治集團間의 關聯을 論한 글로써 다음이 있다. : H. Gordon Skilling, "Group Conflict and Political Chang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215~234.

“문을 닫아 가는”식의 自力更生을 고집하던 毛체제기와 구분짓도록 하는 획기적 變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의 天安門 事態는 鄧체제가 추구해온 改革의 제반 문제점을 표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해결과정에 있어서 中國指導部내의 갈등을 확연히 노출시켰다.

II. 改革 推進중의 指導部내 葛藤

鄧체제의 改革政策은 指導部내의 두 가지 合意에 기초한다. 하나는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이라는 발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四個 現代化” 계획²⁾ 이고, 다른 하나는 改革을 통한 四個 現代化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될 副作用을 통제하기 위한 “四項 基本 原則”의 견지³⁾이다. 그것들은 改革政策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여겨지는 “12大” 이전에, 毛의 革命的 過激主義가 鄧의 實用主義 路線으로 대체되면서 결의되어 현재에도 유효하다.⁴⁾

한편 生産力 發展을 中國의 당면 과제로 규정한 指導部가 그의 족쇄가 될 수도 있는 四項 基本 原則을 闡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⁵⁾ '70년대 후

2) 11屆3中全會(1978.12.18-12.22)에서 공표된 것으로 農業·工業·科學·國防 方面의 現代化 計劃을 말한다. 4個 現代化 路線의 政策 概要는 다음과 같다. 農業: 農業의 機械化, 耕地 面積의 擴大, 商品 食糧 基地의 建設, 自留地 經營 認定과 擴大 工業: 鐵鋼·電力·燃料·輸送 등 基礎 工業의 發展 重視, 基礎 工業에 있어서 規格化·系列化·汎用化 重視, 地方의 中小型企業 특히 輕工業 發展을 重視; 科學 및 技術: 思想과 技術을 分離, 先進技術의 積極導入, 研究開發의 積極推進; 國防: 軍을 生産 活動에서 解放, 近代戰과 近代 科學 知識에 관한 教育 強化, 軍事 科學의 發展.

3) 鄧小平이 1979년 3월 30일 黨 理論 工作 原則 研究會에서 행한 講話로서 첫째, 社會主義 道路, 둘째, 無產階級 專政, 셋째, 共產黨의 領導, 넷째, 마르크스레닌이즘과 毛思想의 堅持를 闡명한 것이다.

4) 두 가지 合意 事項은 '82년 “5全人大”의 憲法 序言에도 明示되어 있으며, '87년의 黨規 총강에도 存續되어 있다.

5)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相反된 評價가 있다. 中國當局은 兩者의 關係를 논하면서 “4項 基本 原則은 4個 現代化 建設의 根本 前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實現시키는 가장 중요한 擔保”라고 評價한다. : 吳振坤·王樹雲 共著, 『中國社會主義 現代化 建設問題』(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4), pp.284-302; 이에 반해, 서진영氏は 양자의 關係가 矛盾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서진영, “中國共產黨의 役割 認識 變化,” <아세아 연구> ('87.7, 제30권 2호, 통권78호), pp.258-268.

반 中國사회는 경제적 合理性이 무시되는 사회 풍조가 있었다.⁶⁾ 鄧은 집권후 이러한 풍조를 바꾸고자 이데올로기 논전을 장려하였다.⁷⁾ 그 결과, 人民들의 의식은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도시의 교육을 받은 젊은 계층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傾向을 갖게 되었다.⁸⁾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은 指導部가 예기치 못했던 것으로 젊은이들을 社會·政治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위기감은 指導部로 하여금 공식이데올로기의 강화를 결정하도록 만들었고, 구체적인 방책으로 四項基本原則의 견지를 내세우게 하였다.⁹⁾

여기에서 指導部의 凝集力을 懷疑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指導部를 막론하고 완전합일된 결정은 없기 마련이다. 더욱이 中國指導部가 합의한바의 四個現代化 推進과 四項基本原則 堅持는 각각 經濟와 理念 영역으로 분리된 決定策이다. 그렇다면 指導部의 구성원은 각자의 性向에 따라 두 영역의 合意策 중에서 강조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不協和音의 가능성이 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政局을 살펴보면 指導部의 분열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鄧小平 세력의 핵심政策인 “現代化 建設”이 선차적 목표로 공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⁰⁾

6) 당시 3가지의 슬로건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 經濟보다 政治性을 중요시 할 것 (要算政治場, 不要算經濟場); 둘째, 資本主義 知識보다 社會主義 無知가 낫다 (寧要社會主義的無知, 不要資本主義的知識); 셋째, 社會主義의 풀을 놓아둘지 언정 資本主義곡식은 놓아 두지 않는다(寧要社會主義的草, 不要資本主義的苗), Xue-Liang Ding, "The Disparity Between Idealistic and Instrumental Chinese Reformers" <Asian Survey> ('88. 11. vol. 28, No.11), p.1118.

7) 당시의 眞理의 標準 論爭을 가리킴.

8) 예를 들면, 個人主義로부터 西歐의 맑시즘 까지; 民主的 自由主義에서 니이체의 哲學까지; 實存主義에서 프로이트學까지 다양한 色彩를 띠었다. : Xue-Liang Ding, Op.Cit., P.1119.

9) Ibid., p.1119-1120.

10) 서진영씨는 中國의 改革 政治가 初期부터 急進的인 改革派의 理論과 保守的인 改革派의 理論을 동시에 包含하고 있었다면서, 그 原因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사실 鄧小平의 改革政治를 支持하는 政治勢力은 다양한 이해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性向을 지닌 여러 세력들의 聯合體의 성격에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따

이것은 '80년 1월 16일의 幹部會議에서 鄧小平이 보고한 “目前的形勢와 任務”에 잘 나타나 있다. 11屆3中全會 이후 이 文件에서 鄧은 '80년대의 세가지 任務중 核心은 “現代化 建設”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있다.¹¹⁾

A. 指導部의 範圍

中國의 실질적 파워엘리트는 黨·政·軍의 세 분야에 集中되어 있다.¹²⁾ 본攷에서 상정하는 指導部는 특히 黨의 指導部로써 이들은 政·軍 분야마저도 統制하고 있다. 실제로 中國共產黨 章程에는 “中國共產黨은…中國各民族 人民이익의 충실한 대표이며, 中國社會主義 사업의 영도핵심”(강조 논자 표시) 이라고 표현돼 있다. 總則에 이어 2장 15조에는 전국적 성격을 띤 중대한 政策문제는 오로지 黨中央만이 決定權을 갖는다고 밝혀 黨의 독보적인 位相을 설정하고 있다.¹³⁾

라서 毛澤東 時代의 中國과는 다른 방향에서 中國의 社會主義를 建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中國의 改革과 開放에는 기본적으로 同意하면서도, 改革의 範圍와 速度 등에 대하여는 심각한 見解의 差異를 보여 주었다.”: 北京人民出版社 編, Op.Cit., 序文, p.viii.

- 11) “目前的形勢和任務”는 '80년대의 임무가 ①霸權主義의 反對 ②祖國統一實現 ③4個現代化의 세 가지이며, 核心인 ③項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문제를 우선 前提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①始終一貫된 政治路線 ②安定團結된 政治局面 ③艱苦奮鬥의 創業精神 ④社會主義 및 專門知識과 能力을 兼備한 幹部: 이진복 譯, 『중국혁명의 현단계: 「등소평 문선」』 (서울: 일월서각, 1987), pp. 210~248.
- 12) 中國의 權力構造에 대한 制度的 接近은 다음을 참조: 김정계, 『中國의 最高指導層』 (서울: 평민사, 1990), pp.18-92; 中蘇研究室 編, 『中共의 改革政治』 (서울: 경남대국문문제연구소, 1985), pp.15-39; James C.F.Wang, 『現代中國政治論』, 이문규 譯(서울: 인간사랑, 1988), pp.91-204; 한편, 중앙정부 기구의 연혁을 전국 후, 시기구분하여 설명한 중국학자의 글로는 다음이 있다: 蘇尙堯, “我國中國政府機構의沿革(一一四)”, <K4 中國 現代史>('87년 제7기), pp.9-20; 蔣輔義, “中華人民共和國政治體制的歷史考察”, <K4 中國 現代史>('90년 제1기), pp.109-114.
- 13) 이는 中國共產黨이 모든 政治 權力의 根源이며 다른 政治 組織을 統制하는 獨占의 權利를 가지며, 黨만이 中國社會를 위한 政治·經濟·社會의 目標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제임스 왕의 論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James C.F.Wang, Op.Cit., p.91.

이러한 黨의 권위는 中央委員會·政治局·常務委員會에 의해 행사된다. 黨章程에 따르면 黨의 전국대표대회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규정일 뿐 실제로는 5년에 한 차례 열리는 黨대회를 대신하여 中央委員會가 黨대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黨의 모든 사업을 영도하며 대외적으로 中國共產黨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다.¹⁴⁾ 그러므로 中央委員會는 黨의 최고 政策 審議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中央委員會의 직권은 다시 대부분 中央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에 의해 행사된다.¹⁵⁾ 그것은 政策 결정기구로 작동하기에는 規模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인 듯 하다.

黨·國家·軍의 고위 엘리트에 대한 人事는 사실 政治局이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호운(Franklin Houn)에 따르면, “頂上 중의 頂上”으로서 실질적으로 中國政治를 좌우하는 集團이다.¹⁶⁾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中國指導部の 범위를 政治局 常務委員會를 중심으로 한 政治局 委員들에 국한시켜 논의한다.¹⁷⁾

14) 黨章程 3장 20조.

15) 黨章程 3장 21조: “中央政治局과 그 常務委員會는 中央委員會全體會議의 閉會기간 중에 중앙위원회의 職權을 행사한다”; 중소연구실 편, Op.Cit., P.18: “中央委員會도…政治局 혹은 政治局 常務委員會에서 決定된 政策,… 人事變動事項 등을 承認, 比準, 내지 支持하는 것이 보통이다.”

16) 김정계, Op.Cit., pp.22-23; 中·蘇研究室編, Op.Cit., pp.20-21

17) 한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中央顧問委員會 主任과 副主任의 存在이다. 黨章程 3장 22조에 따르면 中央顧問委員會의 主任과 副主任은 中央顧問委員會全體會議에서 選出하도록 되어 있다. 委員들은 中央委員會總會에 參席할 수 있으며, 副主任은 中央政治局全體會議에 參席할 수 있는 資格을 갖고 있다. 참고로, “12大”와 “13大”의 主任은 각각 鄧小平과 陳雲이었음을 밝힌다. (“12大”때는 主任을 中央政治局 常務委員 중에서 뽑도록 돼 있었다); 중국에서는 25내지 35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파워엘리트를 구성하다면서, 그들을 4가지 형태로 분류한 글이 있는데 그것은 “탁월한 지도자(Preeminent Leader)”, “원로(Elders)”, “일반관리자(Generalist)”, “기능상 전문가(Functional Specialist)”로 나뉘어진다. Kenneth Lieberthal and Michel Oksenberg, *Policy Making in China Leaders, Structures, and Process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p.36-37.

B. 改革의 持續을 둘러싼 指導部내의 對立

改革의 推進 과정에서 빚어진 副作用은 여러 가지이다. 그것은 政策 자체의 缺陷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改革對象의 條件·環境의 미비 탓일 수도 있으며, 改革 成果에서 疏外됨으로써 반발하는 세력의 증가가 원인일 수도 있다. 그것은 각기 理念·社會·政治·經濟 등의 方面에 구체화된다. 이러한 副作用에 대한 指導部내의 認識과 對處方案의 差異로 말미암아 指導部내의 對立은 深化되어 갔다. 대개 保守派와 改革派는 일반적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차이를 드러낸다. 즉 保守派는 문제의 이데올로기적 해결, 教義上的 連續性, 經濟의 集中을 支持하는 傾向이 있으며, 改革派는 實用主義的 解決, 理論的 刷新, 經濟의 脫 中央 集中化를 비교적 愛好한다¹⁸⁾는 것이다. 이것은 中國의 경우 改革과 調整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政治 方面上의 對立

“12大”에서 改革추진의 重責을 맡게된 胡耀邦은 마르크스 逝去 100周年 紀念 大會상의 보고를 통해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의 新局面을 맞이하고자 하면서, 中國 國情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제·사회생활 영역내의 그릇된 觀念과 모델을 改革해야만 하는 當爲性을 논한다.¹⁹⁾ 그는 철저히 “生産力 發展 優先”에 기반하여 생산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생산관계 및 상부구조를 개변하고자 하였다. 이의 강력한 요구는 漸進的 改革派²⁰⁾의 반발을

18) Philip G. Roeder, *Soviet Political Dynamics: Development of First Leninist Polity*(New York: Harper & Row, 1988), p.272.

1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重要文獻選篇(上)』(北京:人民出版社, 1986), pp.291-316.

20) 指導部내의 對立을 살펴 보기에 앞서 論者는 中國 指導部내에 分派가 존재함을 前提한다. 이때, 分派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保守派”와 “改革派” 대신에 “漸進的 改革派”와 “總體的 改革派”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異意를 提起할 수도 있겠다. 강한 2분법적 思考로는 “漸進的”과 “總體的”이라는 어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급속한 改革추진이 빚게 될 부작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陳雲은 다음과 같은 警告性 發言을 하였다.

“改革에 관한 決定은 말하고 있다. : ‘競爭중에는 약간의 消極의 現象과 違法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소극적 현상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많이 먹고 마시며, 귀중한 賸物을 하고, 작은 集團과 個人의 利益을 圖謀하기 위해 國家에 損害를 입히는 부당한 手段 등이 바로 消極 現象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주의하지 않고 필요한 관리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이 현상들은 매우 氾濫하여 우리의 黨風과 社會風紀를 어지럽힐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때문에 우리는 物質文明의 建設을 틀어쥐는 동시에 반드시 精神文明 建設도 틀어 쥐어야 한다.”²¹⁾

이와 같은 講話는 改革의 강행이 人民을 경제적 財富의 획득에 埋沒시킴으로써, 전사회에 拜金풍조가 蔓延되어 사회의 기풍이 흐려질 것임을 警告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鄧小平은 消極의인 要素들이 招來될 수 있다는 것은 각오하여야 하지만 그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²²⁾

도시부문의 改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陳雲은 中國사회가 현재 사상적으로 混亂하다면서 그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²³⁾ 思想이 혼란한

뒤의 對應이 不適合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兩 勢力이 모두 改革을 통한 中國의 特色이 있는 社會主義를 建設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한편으로 차이점도 크다. 主導的 改革勢力은 全 分野의 改革을 동시에 推進할 것을 주장하고, 微溫的 改革勢力은 改革 條件 및 環境의 整理·整頓을 내세워 부문별로 徐行 改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에, “漸進”과 “急進” 혹은 “部門”과 “總體” 등의 對句를 피하였다.

21) 陳雲, “在黨的12屆3中全會上的書面發言(’84.10.20)”,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二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北京:人民出版社, 1986), pp.590-591.

22) 鄧小平, “4개 現代化的 雄大한 目標과 그 實現을 위한 根本政策(’84.10.20)”,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二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北京:人民出版社, 1986), pp.590-591.

23) 陳雲, “要努力學習馬克思主義的基本理論(’85.6.7)”,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Op.Cit., (中), pp.738-744.

것은 첫째,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기본이론을 조직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당면과제에 대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론을 適用하여 해결코자 하는 努力이 不足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체제 改革은 思想的 활성화를 요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統一이 있어야만 한다면, 사상통일의 이론적 기초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四項 기본 原則이라고 하였다. 즉, 陳의 問題 解決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열성적 학습에서 찾아진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은 胡와 많은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胡는 黨 전국 대표회의의 개막사를 통해 改革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는 經濟 正세 발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領導 幹部들이 才와 德을 兼備 하였으며 脫高齡化되었으며, 社會主義 現代化 建設 要求에 잘 適應하고 있으며, 黨의 마르크스主義 방침에 입각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성공적 시기라는 것이다.²⁴⁾ 나아가 胡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改革의 성과를 陰性的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勢力에 대하여 공격을 가한다. 그는 改革의 遲延이 黨내에 常存하는 矛盾중의 하나인 “工作上·認識上 不同한 意見의 矛盾”에 기인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제기하였다.²⁵⁾ 첫째, 모든 중대 결정은 반복하여 구체화 해보고 결정할 것; 둘째, 黨회의는 黨員이 자유로이 의견을 발표하고 누구에게라도 비평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세째, 전심전력을 다하였어도 공작중에 偏差가 생기면 이의 개정을 許諾할 것; 네째, 黨 中央의 정책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작중에는 違反하지 말고 열심히 執行하여야 한다. 이상의 警告중

24) 胡耀邦, “團結奮鬥, 再展宏圖”(85.9.18), Ibid., pp.779-784; 이와 같은 견해는 4개월 후에 書記處가 主催한 중앙기관 간부대회(86.1.6-9)에서 田紀雲의 支持를 얻는다. 田은 “關於當前經濟形勢和經濟體制改革的問題”라는 報告를 통해, 胡의 발언에 대한 근거를 발표하였다. ①국민경제의 고속 성장지속 및 안정증가 ②중요한 경제 비례 관계가 기본적으로 협조 상태임 ③경제효율의 제고 ④과학기술 및 교육산업의 큰 발전 ⑤인민의 생활수준 향상 ⑥국민 경제 발전의 저력 증가: <人民日報> (86.1.12 字).

25) 胡耀邦, “關於正確處理黨在兩種不同的矛盾的問題”(86.4.9), Ibid., pp.970-974.

특히 네번째 것은 改革推進의 과정에서 既得權을 喪失하거나, 혹은 改革의 성과에서 과실을 얻지 못한 세력들의 반발²⁶⁾을 制壓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胡는 진작부터 강조되어 왔던 精神汚染 및 資產階級 自由化 반대라는 黨의 공식적 입장에 소극적이었던 관제로 '86년말의 學生示威에 책임을 지고 總書記職에서 물러나게 된다.²⁷⁾ 이에 대하여 鄧小平은, 몇해 동안 지속된 자산계급 자유화 사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여 시위 학생들이 黨의 領導를 반대하고 社會主義 길을 반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명백히 胡의 중대한 過失이라고 지적하였다.²⁸⁾ 여기에서 資產階級 自由化 反對 캠페인에 대한 指導部의 결의를 알 수 있다. 이 캠페인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누구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指導部의 견해를 分派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李先念은 資產階級 自由化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四項基本原則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면서, 中國은 결코 資本主義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 斷言한다.²⁹⁾ 그는 中國이 資本主義의 길을 걷게 되면 다시 植民地·半植民地

26) 이러한 세력들 중 대표적인 집단은 軍指導部, 老壯官僚, 毛主義의 價値에 偏向된 文革 수혜 당원 등이다. : 패리스 H. 장, “개혁세력의 등장과 그 정책”, 李相禹 編, 『中共의 새 進路』(서울: 법문사, 1986), pp.62-66.

27) '87년 1월의 政治局 擴大會議 公報는 胡耀邦을 가리켜, “黨의 集團 指導 體制를 違反했고 중대한 정치문제 원칙에 실패와 過誤를 범한 자”라고 기술했다고 하며, 趙紫陽은 胡의 실각 원인이 “자산계급 자유화를 용인하고 지지했으며 정치개혁의 과격한 급변포를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金鐘, Op.Cit., P.64 ; 胡의 失脚은 그가 간부종신제의 폐습을 是正하려는 이유로, 元老들의 反感을 산 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鄧力群과 胡喬木은 陳雲, 彭眞, 薄一波, 楊尚昆 등의 협력을 얻어 胡의 失脚 工作을 꾸렸다. 그들은 '86. 12. 27에 鄧을 방문하여, 학생운동은 資產階級 自由化 주장 인사들(方勵之, 王若望, 劉賓雁) 탓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胡耀邦의 指導가 확고하지 못하고, 放任만 한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鄧이 그들의 見解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陸鏗, “胡耀邦 실각의 진상”, <공산권연구>('87.6.100호), pp.97-102.

28) 鄧小平, 『中國特色이 있는 社會主義를 建設하자』(北京: 民族出版社, 1987), pp.172-178.

29) 李先念, “改革, 開放政策符合中國國情('87.3-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二大以來重要文獻選編(下)』(北京: 人民出版社, 1988), p.1299.

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⁰⁾

鄧小平은 한결 더 강도높게 발언한다. “自由化 자체가 바로 자산계급적인 것입니다. 無產階級的 自由化, 社會主義的 自由化란 없는 것입니다.”³¹⁾ 그리고, “中國은 現代化를 實現하여야 하지만 自由化를 하거나 西方 資本主義 길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됩니다.”³²⁾ 鄧은 자유화 사조가 氾濫하면 中國의 現代化 사업이 충격과 攪亂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11屆3中全會 노선의 관철을 위해서는 安定된 政治的 環境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目標은 하나여야 하며, 그것은 바로 安定된 政治的 環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安定된 정치적 環境이 없이는 모든 것을 運轉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國家 統治에 있어서 큰 도리이므로 개별적으로는 이치가 있을 수도 있는 작은 도리들을 제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³⁾

이 대목에서 中國 指導部의 根本的 保守性을 感知하게 되며, 현재 개혁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게 된다. 實用主義 政權이라고 지칭되는 鄧체제가 출범시부터 표방하였던 “改革·開放”은 분명히 “生産力發展”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체제외적 요소마저 과감히 採擇하여 왔었다. 그런데, 改革·開放의 深化에 따른 人民의 요구가 표출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발전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糾彈하고 있다. 이는 생산력 발전에 照應하지 못하는 상부구조를 단연코 改變시키자는 체제 改革의 논리에 모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矛盾性에도 불구하고 指導部는 改革·開放을 持續할

30) Ibid., p.1299.

31) 鄧小平, “黨 中央委員會 第12屆 第6次全員會議에서 한 演說 ('86.9.28)”, Op. cit., p.160.

32) 鄧小平, “資產階級自由化를 하는 것은 곧 資本主義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85.5)”, Ibid., p.120.

33) Ibid., p.120; 이러한 견해는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일례로, '87. 3. 27의 발언은 첫째가 政局安定, 둘째는 人民의 團結, 세째가 生産力의 持續發展이라고 한다. 新華通訊社國內資料室 編, 『十年改革大事記(1978-1987)』 (北京: 新華出版社, 1988), p.16.

것이라고 공언한다. 즉, 改革·開放은 人民이 擁護하는 것이므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할 수도 없다³⁴⁾고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胡耀邦의 뒤를 이어 改革 추진 책임자가 된 趙紫陽은 11屆3中全會의 두 基本點 간의 상호 관계를 언급한다. '87.1.29의 발언은 四項 基本原則의 堅持가 철저히 못하면, 改革·開放·活性化를 保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³⁵⁾ 그러나, 그는 資產階級 自由化 반대 鬭爭이 결코 '左'적인 그릇된 방법을 許容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政治運動이 아니라고 強調하였다.³⁶⁾

또한, 資產階級 自由化 반대 투쟁의 範圍를 黨내로 局限시키고, 투쟁의 중점을 정치사상 영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³⁷⁾ 이와 같이 資產階級 自由化 반대 투쟁의 강도를 애써 감소시키려는 듯한 趙의 意圖는 同年 5월 13일의 講話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資產階級 自由化 반대가 4,5개월 진행된 현재, 자산계급 자유화 思潮 氾濫의 상황이 이미 전환되었다면서, 이제 學園내 분위기도 가라 앉았으며, 資產階級 自由化 思潮는 公開的 市場을 잃었음을 예로 들었다.³⁸⁾ 이와 같은 언급은 趙의 정치적 定向이 指導部 원로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이 示唆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여겨진다. 改革추진 선임자였던 胡耀邦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趙의 政策選好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諸面의 考慮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이 모두 第2梯隊로서 第1梯隊인 革命元老들과 意識 構造가

34) 李先念, Op.Cit., p.1300; 鄧은 胡耀邦의 失脚이 黨의 路線·政策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政治·經濟體制 改革에도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鄧小平, Ibid., “四個基本原則에 대한 教養을 強化하며, 改革·開放政策을 堅持하여야 한다(87.1.20)”, p.176.

35) 趙紫陽, “在春節團拜會上的講話('87.1.2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Op.Cit. (下), p.1261.

36) Ibid., p.1264: 趙는 文化大革命期에 경험하였던 “運動”이 결코 資產階級 自由化 問題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한, 두 차례의 운동으로는 자산계급 자유화 思潮의 影響을 근본적으로 除去할 수 없다는 認識을 가지고 있다.

37) Ibid., p.1264.

38) 趙紫陽, “在宣傳·理論·新聞·黨校幹部會議上講話” ('87.5.1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Op.Cit., (下), p.1397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사람은 체제의 2가지 목표중 이데올로기적 目標보다 經濟的 目標에 優先權을 두고 있기에 改革 추진의 責任者가 될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政策 推進의 總責任者라는 위치가 理想論的 革命家 보다는 合理的 管理者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정해 본다. 즉, 정책 추진의 결과에 의해 능력을 인정받게 될 책임자로서는 可視的 成果의 向上에 더욱 충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정치 방면에서 나타나는 分派간의 對立은 생산력 발전을 위하여 먼저 富裕해지는 집단을 認定해 주는 데서 나타날 副作用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漸進的 改革派는 資產階級 自由化를 확고히 반대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總體的 改革派는 資產階級 自由化의 반대에 일단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改革·開放의 추진에 足鎖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이 때 관심을 끄는 것은 總體的 改革派로 분류된 鄧小平의 견해가 도리어 漸進的 改革派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체제 改革이 지연되고 있는 根因과 指導部 재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

(2) 經濟 方面上의 對立

趙紫陽이 黨 總書記로서 업무추진을 본격화하는 것은 '87년 10월의 "13大"에서 工作報告를 행한 이후이다. 그의 "中國의 特色을 지닌 社會主義 路線을 따라 前進하자"³⁹⁾라는 보고는 中國이 현재 社會主義 初級階段⁴⁰⁾에 있음을 밝혔으며, 경제 발전전략과 경제체제 改革등에 관해 논급했다. 이 보고는 '84년 10월 20일 거행된 12屆3中全會의 "經濟體制 改革에 관한 決

39)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I. 역사적 성과와 이대회의 임무, II.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당의 기본노선, III. 경제발전 전략에 관하여 IV. 개혁에 관하여, V. 정치체제 개혁에 관하여, VI. 改革 開放 과정에서의 黨 건설의 強化, VII.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中蘇研究>(서울: 한양대 중소연구소, '87년 겨울호), pp.245-279.

40)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전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단계.

定”을 包括하면서 社會主義 初級段階에서의 指導 方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⁴¹⁾

첫째, 현대화 건설에 邁進하여야 한다. 社會主義의 근본 임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전면적 改革을 반드시 堅持해야 한다. 改革은 社會主義 生産關係와 上部構造의 自我 完成이자 모든 활동을 추진하는 原動力이다.

셋째, 對外 開放을 반드시 堅持해야 한다. 閉鎖된 상태에선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

네째, 반드시 公有制를 主體로 하는 計劃的 商品經濟를 힘껏 발전시켜야 한다.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을 위하여 勞動에 따른 分配의 전제하에 다양한 分配方式을 실행해야 한다. 또 共同富裕의 목표하에 일부 人民이 誠實한 勞動과 合法的 經營을 통해 먼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다섯째, 安定·團結을 전제로 하여 민주정치 건설에 노력해야 하는데 人民民主獨裁는 弱화될 수 없다.

여섯째, 마르크스主義를 指針으로 하여 精神文明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지도방침은 改革·開放의 지속과 더불어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의 建設을 함께 이루겠다는 總體的 改革派의 굳건한 決意 表明이라 하겠다. 이것은 胡耀邦의 失脚으로 위축되었던 總體的 改革派가 다시 自派의 방식대로 改革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건이었는데, 漸進的 改革派의 뿌리 깊은 牽制를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하였음을 示唆한다.

漸進的 改革派와 總體的 改革派 간의 경제 노선상의 대립은 주로 경제 改革을 통한 발전의 速度에 관한 것과 計劃經濟와 市場調節의 融合을 둘러싼 문제이다.

먼저 경제발전의 속도에 대하여 漸進的 改革派는 완만한 발전속도의 유지를 주장한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持續·安定·協同의 發展만이 전

41) 서석홍 編,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진로』(서울: 풀빛, 1990), pp.46~47.

면적으로 실효가 있는 高速度 發展을 保證한다⁴²⁾는 慎重論이다. 陳雲의 말을 빌려 좀 더 실제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84년의 工業 總生産値는 83년 比해 14%가 增加하였고 今年”(’85)1월 부터 7월까지는 작년의 동일기간에 比해 22.8% 增加하였다. 이와 같은 高速度는 계속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中國은 현재 에너지, 交通, 原料等이 모두 이러한 高速度의 需要에 適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計劃 있게 比例에 맞춰 온전한 前進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緊張과 統制의 失敗를 조성할 것이며 그의 反復을 면하기 어려워져 결과는 오히려 늦어질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⁴³⁾

이와 같은 견해는 陳雲의 경제사상⁴⁴⁾중 경제의 安定과 均衡 發展을 강조하는 부문에서 도출된 것이다.

漸進的 改革派에 비하여 總體의 改革派는 보다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趙紫陽의 능력이 돋보인 四川에서의 工作은 文革 10년으로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대담하게 改革하였다. 그의 기본정신은 鄧小平의 “貓論”이다. 趙는 “生産資料 公有制과 ‘勞動에 따라 分配를 받고 個人이 資本을 占有하여 다른 사람을 搾取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기만 하면 어떤 모양의 體制·政策·方法이든 마

42) 李先念, “中國共產黨 全國 代表會議 閉幕辭 (85.9.23)”,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Op.Cit., (中) p.849.

43) 陳雲, “在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上的講話(85.9.23)”, Ibid., p.844.

44) 경제 발전을 위한 陳雲의 指導思想은 '79년 7월 중앙정치국에서 행한 演說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①務實(實事求是) ②穩健(漸進主義) ③平衡(均衡發展) ④兼用(諸經濟形式的 병존, 예를 들어, 國營·集團·個人·外國合資) ⑤讓步(經濟發展을 위해 資本主義的 要素의 價値 認定); 김영준, 『毛澤東思想과 鄧小平의 社會主義』(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p.419; 한편 중국의 劉國光은 “學習陳雲同志的經濟論著”(《인민일보》, '90.9.14)에서 陳雲의 경제사상은 다음에 중점이 있다고 하였다. ①첫째는 먹어야 하고, 둘째는 건설하는 것이다. ②건설규모는 국력에 상응해야 한다. ③비례에 따르는 것이 객관적 규율이며, 중환균형이란 바로 비례에 따른다는 것이다. ④계획의 지도하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시장의 조절 기능을 발휘시킨다.

당히 採用해서 생산력의 발전을 최대한 촉진, 社會主義제도의 積極性을 진정 발휘토록 해야지 결코 스스로 자신을 束縛해서는 안된다”⁴⁵⁾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어서 政敵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提供하였으나, 趙는 오히려 그들을 詰難하였다.⁴⁶⁾ 이것은 趙가 생산력 발전을 社會主義의 최우선 임무로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趙에 비하여 鄧小平은 발전의 속도를 약간 늦출 것을 建議한다. 鄧은 “中國 特色이 있는 社會主義를 建設하자”는 담화를 통해, 경제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킴에 있어서 너무 빠른 것은 실제에 맞지 않으므로 약간 빠르게 推動해야 한다⁴⁷⁾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차 5개년 계획 중의 工農業 총생산액의 年成長率이 약 7%로 예정된 것을 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7%의 成長速度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적지않은 문제들이 초래되고 改革과 社會氣風에 대해서도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좀 穩當하게 나가는 편이 좋을 것”⁴⁸⁾이라는 의견이다. 이 정도의 발전 속도 요구는 趙紫陽보다 鄧이 상대적으로 持續적이고 穩當하며 均衡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속도에 대하여 두 分派간의 妥協 가능성이 엇보임에 비해, 計劃經濟와 市場調節의 融合을 둘러싼 두 分派간의 견해 차이는 훨씬 顯著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總體的 改革派는 “經濟體制 改革에 관한 決定”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행의 計劃體制를 改革한다는 것은 바로 순서적으로 적당히 指令性 計劃의 범위를 縮小시켜 나가며, 指導性 計劃의 범위를 擴大시켜 나가는 것이다.

45) 김소중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 종로서적, 1988), p.203.

46) Ibid., p.204 : 그는 1980년 5월 4일 공개적으로 “과거 2년간, 나는 四川에서 약간 資本主義 色彩를 띤 경제정책을 취해 많은 사람들이 이 趙紫陽이가 四川에서 資本主義를 復活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實踐은 證明한다. 四川 人民은 이미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만 있다면 자본주의를 좀 취한들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호언했다고 한다.

47) 鄧小平, Op.Cit., p.58.

48) Ibid., “中國共產黨 全國代表大會에서 한 演說('85.9.23)”, p.134.

國計民生에 관계되는 중요산품중 국가의 調達·分配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그리고 全局面에 관계되는 중대한 경제 활동에 대하여는 指令性 計劃을 실행하고 : 기타 大量產品과 經濟活動에 대하여는 不同한 情況에 맞춰 指導性 計劃을 分別하여 실행하거나, 혹은 완전히 市場이 調節한다.⁴⁹⁾

인용문을 통해서, 總體的 改革派는 명령적이고 필수적인 計劃部門을 縮小시켜 나가고, 반대로 市場을 통한 自律的 經濟 運行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漸進的 改革派의 意圖 - 計劃經濟를 위주로 하되, 市場調節을 보조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과 상당한 差異가 있다고 여겨진다.

漸進的 改革派의 計劃과 市場간의 融合에 대한 방침은 陳雲의 “烏籠經濟”가 쉽게 설명해 준다. 陳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또한 경제를 活性化시키는 과정에서 국가 計劃을 離脫하는 경향이 출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計劃의 指導下에서 活性化하는 것이지 計劃의 指導를 離脫한 활성화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새와 새장의 관계와 닮았다. 새는 손아귀에 움켜쥐면 안된다. 손안에 놓려두면 죽게 될 것이므로 날게 해줘야 한다. 그러나, 단지 새장 안에서만 날게 해줘야지 새장이 없으면 새는 날아가 버릴 것이다. 만약 새를 經濟活性化라고 한다면, 새장은 바로 國家 計劃인 것이다.”⁵⁰⁾

4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中), Op.Cit., pp.569-570; 計劃體制에 대한 기본점도 같은 page 에서 다음처럼 概括하고 있다. 첫째, 총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실행하는 것은 計劃經濟인데, 곧 계획있는 商品經濟이지 완전히 시장이 조절하는 시장경제는 아니다. ; 둘째, 완전히 市場이 조절하는 生産과 交換은 주로 부분적 農副產品 및 日用小商品과 수리업에 勤務하는 勞動活動이다. 그것들은 國民經濟 중에서, 補助的인긴 하지만 적지 않은 작용을 일으킨다. ; 셋째, 計劃經濟를 실행하는 것이 指令性 計劃 爲主와 같지는 않다. 指令性 計劃과 指導性 計劃은 計劃經濟의 구체형식이다. ; 넷째, 지도성 계획은 주로 경제 지렛대의 작용을 발휘 시킴에 의거하여 실현해야 하는 것이며, 지령성 계획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긴 하지만 반드시 價值規律을 운용해야 한다.

50) 陳雲, “就國家經濟建設和上海工作談重要意見”, <人民日報>('82.12.3 字).

陳의 설명에 따르면, 計劃과 市場調節이 결코 배치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양자는 경제의 균형 발전에 필요한 것이므로 적절한 혼합 비율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그가 蘇聯이나 中國 등의 계획 경제 체제가 가진 重要缺陷이 市場調節 기능의 무시⁵¹⁾라고 지적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陳은 指導性 計劃이 市場調節과 같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指導性 計劃도 계획의 일종인 것은 분명하기에 계획적으로 각종 경제 조절 수단을 운용하지만, 市場調節은 계획을 하지 않고 단지 市場의 需要와 供給의 변화에 근거하여 生産을 進行하므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52) 나아가 그는 市場調節을 “盲目性” 調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³⁾

여기에서 陳雲의 對市場觀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근본적으로는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옹호하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市場調節 기능을 굳이 이용하려드는 이유가 궁금하고, 또한 市場調節의 이용이 그가 目標하는 社會主義 경제체제의 純粹性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疑懼心이 들기 때문이다.

“전국 工農業 產品의 주요 부분은 計劃에 따라 生産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一部 產品은 市場의 變化에 따라 國家計劃이 評價하는 範圍 내에서 자유 생산된 것이다. 계획 생산은 工農業 생산의 主體이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국가 계획이 허가하는 범위내의 自由生産은 計劃生産의 補充이다. 이 때문에 中國의 市場은 결코 資本主義의 自由市場이 아니라, 社會主義의 統一市場이다. 社會主義의 統一市場 안에서 國家市場은 그것의 主體이다. 그러나, 일정 범위내에서 國家 領導의 自由市場을 陪伴한다.”⁵⁴⁾

이와 같은 견해는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市場의 機能을 包括하고 있다는

51) 陳雲, “計劃과 市場의 問題”, 강인덕 編, Op.Cit., p.300.

52) 陳雲, “在 中國共產黨全國代表會議上的講話 (85.9.23)”,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Op.Cit., (中), p.843

53) Ibid., p.843.

54) 陳雲 『陳雲文選』 2編 (北京: 人民出版社, 1986), p.13.

주장이다. 그러므로 計劃經濟가 市場調節 機能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 광범위한 국가 계획에 制裁당하는 한, 效用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자본주의의 침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된다.

兩 分派간의 이상과 같은 대비점은 상반된 지향점을 갖고 있는 듯 하나, 中國의 현 경제 상황하에선 相互 折衷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경제상황은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狀況 反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諸 論點에 있어서 相互 補充 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中國의 경제적 近代化와 改革은 陳雲 鄧小平 趙紫陽의 협력된 공헌이 필요하다”⁵⁵⁾ 라는 지적은 意味있다고 본다.

(3) 肯定的 妥協 : 13屆3中全會

“13大” 이후 指導部 내 論爭의 중점은 經濟 發展의 速度와 價格·貨金 改革의 실시에 놓여졌다. '88년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했다. '88년 7월 말 北 戴河에서의 指導部 논쟁중, 副總理 姚依林은 인플레이션을 문제삼아 조자양을 비판하였으며, 그 논쟁점은 주로 價格과 貨金の 改革에 관한 것이었다.

趙紫陽은 價格改革의 급진적 추진이 改革성공의 관건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價格改革과 임금구조 改革의 성공여부는 전반적 경제 메카니즘의 改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⁵⁶⁾ 그리하여, 中央政治局 10次會議('88.8.17)는 “價格 貨金 改革에 관한 初步方案”⁵⁷⁾을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88년 4월, 총리직에 정식 취임한 李鵬은 異議를 提起하였다.⁵⁸⁾ 李는 國

55) David Bachman, “Differing Visions of China's Post-Mao Economy: The Ideas of Chen Yun, Deng Xiaoping, and Zhao Ziyang”, 《Asian Survey》 (Vol.26, No.3, March 1986), p.321.

56) 趙紫陽의 訪問, 《文報》(홍콩, '88.8.3 字).

57) “關於價格工資改革初步方案”, 《人民日報》('88.8.19): 회의는 “價格 貨金改革이 모든 經濟體制 改革의 關鍵”이므로 명년에는 價格·貨金 改革을 잘 틀어쥐어 工業企業의 效率을 提高시키자는 등의 5項工作을 강조하였다.

58) “趙紫陽·楊尚昆·李鵬 分別會見 其辛格”, 《人民日報》('88.7.17): 원래 李의 견해는 價格 改革이 수반할 物價上昇에 대비하여, 企業의 經濟利益 增加에 따라

務院 제20차 常務會議('88.8.30)를 開催해 物價와 市場安定化에 관한 토론을 거쳐 여섯가지 사항을 정하였다. 그 결정의 제1조가 특히 趙紫陽과 李鵬의 대립을 날카롭게 노출시켰다. 그 내용은 政治局이 選擇한 “價格 貨金改革에 관한 初步方案”에서 언급된 “小數의 重要商品과 勞務의 價格은 國가가 管理하고 大多數의 商品가격은 開放하여 市場이 調節하도록 한다”는 것이 단시일 내의 정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⁵⁹⁾ 그것은 장기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써 5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걸려야 비로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趙가 物價上昇에 대한 우려보다 가격체계를 改革하여 市場에서의 가격형성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李는 市場의 조절 능력 확대보다는 物價安定化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兩派의 대립 심화는 13屆3中全會('88.9.26-9.30)에서 暫定的인 合意策을 마련함으로써 일시 小康狀態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 13屆3中全會에서 행한 조자양 총서기의 공작 보고⁶⁰⁾와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행한 李鵬 총리의 연설⁶¹⁾ 내용을 통해 지도부의 결정 사항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趙紫陽의 공작보고는 향후 2년간의 改革과 建設의 중점이 경제 환경의 整理 및 整頓에 놓여 있음을 밝히면서 상호 조화된 全面改革을 질서있게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볼 때 漸進의 改革派의 주장에 승부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趙는 중차대한 당면과제는 通貨賑率과 物價上昇幅이 큰 것이라는 漸進의 改革派의 情況分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⁶²⁾ 이 난제는 社會의 總需要가 總供給을 超過하는 경제 過程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의 해결은 종래의 조자양이 주장했던 방식인 메카니즘의 改善만으로

貨金이 증가하도록 貨金改革도 단행함으로써 人民의 實質生活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59) 〈人民日報〉('88.8.31 字).

60) 趙紫陽 “政治工作報告”, 〈人民日報〉('88.10.28 字), 〈中蘇研究〉(제12권 제3호, 1988 가을) pp.195-206에 전재.

61) 李鵬 “國務院全體會議에서의 演說”, 〈人民日報〉('88.10.13 字), 〈中蘇研究〉(제12권 제3호, 1988 가을), pp.207-213에 전개.

62) 趙紫陽, “政治工作報告”, 〈中蘇研究〉(1988, 가을, 12권 3호), p.196.

로는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정부 공작적인 측면에서 管理와 統制의 強化가 요구된다.⁶³⁾ 그러므로 漸進的 改革派의 주장대로 향후 2년간은 경제 환경의 整理 및 경제 질서의 整頓에 주력하자고 보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환경의 整理를 위해서는 주로 社會的 總需要를 縮小하고 通貨膨脹을 抑制하는 방침⁶⁴⁾을 세우게 되었으며, 경제 질서의 整頓을 위해서는 新舊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현상의 극복책⁶⁵⁾이 강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는 改革이 추구했던 민간 부문의 自律性 提高 勞力을 中止하고, 巨視的 統制를 強化시키는 것이므로 趙의 權威가 경제 방면에서 失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자양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讓步한 것은 아니었다. 漸進的 改革派와 논쟁의 대상이었던 價格改革과 賃金制度의 改革에 있어서 趙는 자신의 견해를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향후 몇년간 지속될 物價 上昇幅의 統制(10%이내)를 이용하여 완만한 價格改革을 追求할 것인데, 초보적 가격합리화는 5년여 기간 내에 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⁶⁶⁾ 또한 賃金制度의 改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平均主義의 克服을 강조하였다.⁶⁷⁾

한편, 13계3중전회가 閉會된 직후 열린 國務會議에서 李鵬은 13계3중전회의 각종 방침과 조치를 관철시킬 것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와 아

63) Ibid., p.196.

64) 구체적으로는 첫째, 내년의 사회 고정자산 투자 규모를 금년의 실제 투자 규모의 80%로 한다. 둘째, 소비기금의 과속 증가를 억제하고, 특히 사회의 집단 구매력을 축소시킨다. 셋째, 일련의 금융 안정 조치를 취하여 화폐발행을 통제하고 저축액의 절대가치를 보호한다. 넷째, 내년의 공업 성장 속도를 10% 내지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내린다. Ibid., p.196-197.

65) 이와 같은 혼란 현상의 발생은 流通部門에서 주로 나타났다. 즉 物價上昇은 流通部門의 違法行爲를 助長하고 流通部門의 혼란은 다시 物價上昇을 誘發함으로써 狀況이 점차 惡化되었다. 이의 具體的 解決方法은 첫째, 自意로 價格을 引上하는 풍조를 척결하기 위해 법적 制度를 강화한다. 둘째, 公社의 整頓, 政·企의 分離, '官商'의 分離, '官倒'의 처벌 등을 강화한다. 셋째, 중요상품의 流通秩序를 確立한다. 넷째, 巨視的인 監督體制를 強化한다. 다섯째, 기업에 대한 각 부문의 割當·徵發·強制壓收 등을 척결한다. Ibid., pp.197-198.

66) Ibid., p.199.

67) Ibid., p.200.

올려, 價格改革은 人民·企業·社會 각 부문의 감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通貨膨脹 및 物價上昇 抑制 要求에 부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⁶⁸⁾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조자양의 방침에 재동을 거는 행위였다.

그의 연설은 경제환경의 管理와 질서의 整頓 방침에 대한 懷疑를 拂拭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조자양의 보고 내용과 같은 방침을 再闡明하면서 生必品の 生産 強化와 내년의 농업생산 증가를 위한 준비를 첨가하였다.⁶⁹⁾ 이것은 생필품의 부족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부족을 해소시켜 物價 上昇率을 鈍化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조자양과 李鵬이 自派를 대표하여 전면에 나서서 벌인 쟁론은 漸進的 改革派의 우세로 歸着되었다. 그래서 향후 2년간은 경제환경의 管理 및 整頓에 置重하게 되었다.

C. 漸進的 改革派의 浮上

(1). '89年 天安門 事態의 對處 過程에서 드러난 指導部 내의 葛藤

13屆3中全會 이후 경제정책 수행의 積極性을 상실한 趙紫陽이 政治的 改革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 知識人 사회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⁷⁰⁾ '88년 12월에 열린 "11屆3中全會" 10주년 기념 토론회에는 于光遠, 王若水, 蘇紹智 등의 改革 支持者를 포함하여 300여명의 지식인들이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蘇紹智는 精神汚染 및 資產階級 自由化 반대 캠페인을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그것의 선두 희생자였던 王若水에 대한 判決의 취소를 要求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하였던 黨 宣傳部의 胡啓立이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世界經濟導報>와 <光明日報>는 그것을 記

68) 李鵬, Op.Cit., p.208.

69) Ibid., p.210-211.

70) Lowell Dittmer, "China in 1989: The Crisis of Incomplete Reform", <Asian Survey> (Vol.30. No.1, Jan.1990), p27.

事化 하였다.

이것은 해가 바뀌면서 지식인들 사이에 政治改革 要求運動을 일으키게 하였다. 方勵之·蘇紹智 등은 政治犯의 釋放 및 民主와 人權을 요구하는 運動을 전개하여 89년 3월까지 1백명 이상이 公開書翰에 서명토록 하였으며, 이것에 이어 각계 각층의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다.⁷¹⁾

人權과 民主를 요구하는 中國 知識人의 움직임에 대하여 黨中央은 強壓 일변도의 정책을 취하면서, 이를 批判하는 公文을 계속 發送하였다고 한다.⁷²⁾

이와 같은 知識人들의 욕구표출은 改革推進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 경제적 제반 문제점과 어울려 “天安門 事態”를 발발하게 하였다.⁷³⁾

前 당 총서기 胡耀邦이 '89년.4.15에 사망하자 北京大學을 중심으로 追悼분위기가 고조되었다.⁷⁴⁾ 그에 따라, 中國指導部에 대한 학생들의 非難

71) 『中國의 悲劇：天安門事件과 그 真相』, 강표 (서울: 인간사, 1989), pp.49-50

72) 예를 들면, 89년 1월 黨 宣傳部가 발송한 中共中央文件은 “民主化를 要求하는 知識人의 움직임은 西方 부르조아 國家에 대한 치우침이며, 西方의 議會制度和 政治制度에 贊成하는 것이어서 절대로 許容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Ibid., p.50에서 再引用.

73) “天安門 事態”의 發生 原因에는 여러 가지 要素가 複合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단지 知識人들의 움직임만을 紹介한 것은 그것만이 黨과 政府에 可視的으로 意思表現을 하였으며, 또한 시간적으로 그러한 批判의 勢圍氣의 延長線 상에서 天安門 事態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밝혀 둘 것은 이 글은 자신의 主題에 몰두하기 위하여 天安門 사태의 원인 및 결과 규명 등은 차후로 미룬다. 참고로, 天安門 事態에 관한 論文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Corinna-Barbara Francis, “The Progress of Protest in China: The Spring of 1989”, <Asian Survey> (Vol.29, No.9, Sept.1989), pp.898-915; Alan P. L. Liu, “Aspects of Beijing’s Crisis Management: The Tiananmen Square Demonstration”, <Asian Survey> (Vol.30, No.5, May 1990), pp.505-521; J. 튜렛 드라이어, “中國 人民解放軍과 1989년의 權力鬭爭” <공산권 연구> (총 132호, 1990년 2월호), pp.53-66; A.G.왈더, “1989 북경 북기의 政治經濟學” <공산권 연구> (총133호, 1990년 3월호), pp.60-76; 周作春 “怎樣看這場風波的性質?” <求是>(89년 제14기, 7월 16일 발행, 총26기), pp.16-20; 常青, “動亂啓示錄”, <求是>(89년 제15기, 8월 1일 발행, 총27기), pp.12-16; 華明, “動亂·暴亂的性質, 根源和教訓”, <求是> (Loc. Cit.), pp.17-20.

74) 北京大 구내에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않고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 “다난한 시기에 당신은 갔다. 中國은 希望은 있는가” 등의 追慕 大字報가 붙었다고 한다. 中島嶺雄, Op.Cit., p.266.

이 드세어가자 4월 25일 오전에 대책을 논의하고자 政治局 常務委員會 擴大政治局會議가 열렸다. 당시 조자양은 4월 23일 부터 30일 까지 평양 방문 중이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李鵬과 楊尙昆이 사태를 보고하였다. 보고에 접한 鄧小平이 강한 자세로 이번의 示威에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⁷⁵⁾ 이같은 상황판단이 天安門 事態를 둘러싼 指導部 내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 鄧의 講話에 입각하여 다음 날(4월 26일) 발표된 〈人民日報〉의 사설 “旗幟 鮮明히 動亂에 反對하여야만 한다”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動亂”으로 명문화하였는데, 李鵬·楊尙昆 등의 漸進의 改革派들은 그의 論調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趙는 歸國 후의 발언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이제 指導部 내 認識의 不一함을 드러내게 한 사설의 내용과 그에 대하여 趙紫陽·鄧小平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社說의 重要내용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追悼 대회 후, 극소수의 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胡동지에 대해 哀悼의 念을 가진 청년 학생들의 심정을 계속 이용하고자, 각종 流言蜚語를 流布하고 民心을 어지럽히며, 大小字報를 써서 黨과 國家 領導者를 함부로 헐뜯고, 名譽를 毀損하며 공격하였다. 그들은 깃발과 구호를 들어 民主와 法制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 目的은 民心을 渙뜨려 전국에 혼란을 造成하고 安定단결된 정치국면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計劃的 陰謀요 動亂이며, 그 실질은 中國공산당의 領導와 社會主義 제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全黨과 전국人民들은 모두 이 투쟁의 嚴重性을 충분히 인식하고 단결하여 旗幟 鮮明히 反對하여야만 한다. 수많은 학우들이 진실로 회망하는 民主의 推進은 바로 黨과 政府의 要求이다. 이와 같은 요구는 오로지 黨의 領導 하에서 管理整頓을 強化하고 改革을 적극 推進하며 社會主義 民主와 法制를 건전히

75) 中國 人民大學의 大字報에 따르면, 鄧이 “단순한 學生運動이 아닌 動亂이다” “學生들이 騷亂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3백만명의 軍隊가 있다. 무엇을 겁내는가! 流血事態를 겁내지 말라!”, “讓步는 또다른 讓步로 이어진다”라고 發言을 하였다고 한다. Ibid., p.53에서 재인용.

하여 實現할 수 있는 것이다.”⁷⁶⁾

사실의 내용에서 類推되는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學生 示威의 순수성은 일부 불순 세력의 조직적 음모에 利用당하여 動亂으로 變質되었다.

둘째, 問題의 深刻성은 그들이 黨의 領導와 社會主義 體制를 否定하는데 있다.

셋째, 학생들의 비판점인 부패와 비민주는 당이 주동적으로 척결하겠다.

이와 같은 논조에 관련하여 조자양은 5월 4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국내 정세를 분석하였다.⁷⁷⁾

첫째, 학생들의 행동을 이용하려는 기도는 면하기 어렵다. 대략, 어떤 이는 動亂이 출현하길 바라며,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장차 사태는 平靜될 것이며, 大動亂은 出現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示威중의 절대 다수 학생은 共產黨과 政府에 대하여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하다. 그들이 결코 우리의 根本制度를 反對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공작중에 범한 弊端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학생들이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貪污腐敗현상이다. 당연히 부패문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法制를 完備하고 民主적으로 감독하며 透明度를 확대하는 등 改革措置와 結付해 진행하여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趙의 언명은 그가 사태의 추이를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사태의 해결방법도 각계 人民들과의 협상대화에서 찾는다. 즉, 民主와 法制의 제도상에서 理性的이고 秩序있는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여 理解를 增進시켜 共同的 關心事를 解決한다⁷⁸⁾는 것이다. 또한, 示威

76) 社論, “必須旗幟鮮明地反對動亂”, 〈人民日報〉(89.4.26字).

77) “趙紫陽分析當前國內形勢”, 〈人民日報〉('89.5.5字).

78) Ibid.

隊의 불만을 사고 있는 원인이 改革의 副作用에 있을 뿐 改革의 成果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는 논지⁷⁹⁾는 종래의 改革정책을 가일층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李鵬은 학생들의 愛國熱情이 극소수인에 의해 動亂으로 유도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5월 19일 北京市黨·政·軍幹部大會⁸⁰⁾에서 다음처럼 언설했다.

“현재, 우리가 만일 이 상황을 신속히 끝맺지 않고 발전해 가는데로 방관한다면, 여러분이 모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出現할 것이다.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心靈은 善良했다. 그러나, 사태의 발전은 이미 청년학생들이 희망하는 바대로 轉移되지 않고, 갈수록 그들의 희망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갈수록 뚜렷이 보고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動亂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中國共產黨의 領導를 反對하고 社會主義 制度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資產階級 自由化 反對의 구호를 부정하고 있는데 目的은 바로 四項基本原則을 반대하는 絕對自由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청년 학생들의 애국열정을 保護·堅持하면서, 그들과 動亂을 꾸미는 극소수인을 엄격히 구별하여 학생시위 중의 과격 언행에 대하여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 요구한 합리적 요구, (예를 들어) 官倒(관료 브로커) 懲治, 腐敗一掃, 관료주의 극복 등은 우리가 장차 열심히 聽取하고 채택하여야 한다.”⁸¹⁾

이 글을 통하여 李鵬은 초기 학생 시위의 순수성이 黨의 領導와 社會主

79) 中央政治局 常委를 代表하여 趙가 5월 17일에 學生들에게 보낸 書面 談話에서도 趙는 학생들의 要求가 “民主와 法制, 腐敗反對, 改革推進”이라고 보고 있다. : “趙紫陽發表書面談話”〈人民日報〉(‘89.5.17 字).

80) 陳希同의 “動亂制止와 反革命暴亂 平靜에 관한 情況 報告(‘89.6.30)”에 따르면 黨中央과 다른 견해를 가졌던 조자양은 李鵬과 함께 本大會에서 演說하는 것과 司會를 맡는 것에 同意하지 않고, 會議에도 不參하였다고 한다. : 〈人民日報〉(‘89.7.7 字).

81) “在首都黨政軍幹部大會上李鵬同志的講話”, 〈人民日報〉(‘89.5.20 字); 이 내용은 본大會에서 전폭적인 支持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陳雲이 主宰하여 5월 26일에 開催된 中央顧問委員會會議에서도 支持를 받았다. (인민일보) (89.5.27 字).

義 制度를 반대하는 이들에 의하여 動亂으로 變質되었으므로, 학생들을 이들과 分離하되 현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자고 촉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최소한 현상황을 動亂 狀態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자양과 상반된다. 그러므로, 대처 방법도 보다 강력해져 동란의 진압과 평정이 선언된다.

이와 같은 對立은 5월 20일에 李鵬총리가 국무원 령으로 발표한 “北京 部分地區戒嚴”에 의해 일단락된다.⁸²⁾

戒嚴令의 宣布는 사실 趙紫陽에 대한 鄧小平의 支持가 撤回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鄧은 왜 趙紫陽과의 이제까지의 관계를 끊고 趙를 궁지로 몰았는가? 거기에는 時局의 전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趙紫陽이 發說한 指導部 내의 默契 事項이 鄧을 因境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과⁸³⁾ 兩者의 示威상황에 대한 인식이 상반되었다는 원인이 있다.

鄧이 示威 狀況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는 幹部들에게 행한 講話에 잘 나타나 있다.

“〈人民日報〉의 4월 26일字 社論은 문제의 성질을 動亂으로 規定하였다. ‘動亂’이라는 두 글자는 아주 적절한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이

82) 일설에 의하면, 5월 19일 오후 4시경으로 豫測되는 政治局 常務 委員會 확대회의에서 “4.26動亂” 社說의 贊反 표결이 있었는데 조자양이 졌다고 한다. 5명의 상무위원중 胡啓立은 조자양을 지지하였으나, 李鵬과 姚依林이 反對하였다. 결국 중간적 입장이었던 喬石이 李鵬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자, 양상근이 鄧小平의 同意를 구해 제엄령 強行의 決意에 이르렀다고 한다. : 中島嶺雄, Op.Cit., p. 57 : 제엄령은 북경시에 발생한 엄청난 동란이 사회안정을 파괴하기에, 이를 견결히 제지하고자 헌법 제89조 16항에 의해 5월 20일 10시부터 발효한다고 선포되었다. 〈人民一報〉(‘89.5.21字)

83) 陳希同, “關於制止動亂和平息反革命暴亂的情況報告(‘89.6.30)” 〈人民日報〉(89.7.7字): “事態가 하루가 다르게 嚴重해져가는 情勢에서, 趙紫陽 同志는 5월 16일 고르바초프와 會見하는 도중에, 의식적으로 鬭爭의 화살을 鄧小平 同志에게로 겨누어 局面을 더욱 惡化시켰다. 그는 會見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鄧小平 同志가 方向舵를 掌握하는 것이 필요하다. 13대 이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항상 鄧小平 同志에게 通報하여 그의 가르침을 구한다.’ 趙는 덧붙이기를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黨의 〈決定〉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 부분은 13屆4重全會중 趙의 과오를 문제하는 李鵬의 보고에서 趙의 죄과로 인정된다. “中國共產黨第13屆中央委員會第4次全體會議公報(‘89.6.24)”, 〈求是〉(‘89.13기 총25기), pp.2-3.

바로 이 두 글자이고, 고치려고 했던 것도 또한 이 두 글자였다. …事情이 폭발하자 곧 매우 명확해졌다. 그들의 根本的 口號는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共產黨 타도이고, 하나는 社會主義 制度를 뒤집어 엮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西方제국주의에 부속되는 資產階級 共和國를 건립하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성질은 바로 資產階級自由化와 四項堅持간의 對立이다. …우리의 과거 10년을 總結하면, 우리의 기본적 제안은 發展戰略부터 方針 政策까지 改革·開放을 포괄하여 모두 옳았다. 만일 부족하다고 한다면, 바로 改革·開放의 정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말하건대, 우리가 원래 제정한 基本 路線·方針·政策을 原案이 밀고 나가고자 했던 바에 따라 견고히 이탈하지 말고 實行해야 한다.”⁸⁴⁾

講話는 鄧小平이 天安門 事態를 명백한 反體制 運動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李鵬의 인식과 同一하다. 그러나 鄧이 완전히 李鵬을 지지한다거나 漸進的 改革派로 돌아섰다고 斷定지을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야기된 근본적 원인으로 人民과 學生과 幹部 및 黨員등에 대한 教育-四項基本原則을 根幹으로 하는 思想 教育-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指摘하고 있는 것은 '85년 6월 부터 '88년 4월 까지 國家 教育 委員會 主任을 맡았던 李鵬에 대한 詰問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改革·開放 정책이 옳았다는 指摘과 그의 불충분함을 역설하는 것은 지속적 改革·開放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면에서 鄧은 治理整頓을 追求하는 漸進的 改革派 보다는 改革·開放을 주장하는 총체적 개혁파에 속한다고 하겠다.

(2) 天安門 事態의 終熄과 指導部의 再編

6월 4일의 武力 鎮壓作戰을 통해 天安門 事態를 해결한 指導部는 6월 23,4 兩日간 北京에서 13屆4中全會를 開催해 事態 解決에 대한 자체적 評

84) 동소평, “在接見首都戒嚴部隊軍以上幹部時的講話”,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鄧小平同志論堅持四項基本原則反對資產階級自由化』(北京:人民出版社, 1989), pp. 176-183.

價 및 指導部내 問責 人事를 단행하였다.

公報⁸⁵⁾에 따르면, 鄧小平을 위시한 老無產階級革命家들이 이번 투쟁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李鵬이 中央政治局을 대표하여 제출한 “趙紫陽同志가 反黨·社會主義 動亂중에 범한 過誤에 대한 報告”를 審議하여 通過시켰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趙紫陽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그는 改革·開放 및 경제업무 분야에서 공을 세우긴 하였으나, 四項基本原則의 堅持와 反資產階級自由化 方針을 소홀히 취급하였다. 더욱이 이번 동란에서 趙는 “動亂을 支持하고 黨을 分散시키는 過誤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趙는 자신의 심각한 과오에 비추어 모든 직책을 박탈 당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조사받기로 결정되었다.

회의는 또한 鄧小平이 수도계엄군 幹部들을 接見하면서 행한 講話를 黨 전체의 思想統一에 필요한 綱領性 文件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면 실천 과제로 다음의 4항목을 지적하였다.

첫째, 動亂을 철저히 鎮壓하여 형세를 安定시켜야 한다.

둘째, 管理·整頓[治理整頓]을 계속해 나가며, 改革·開放을 더욱 堅持해나간다.

셋째, 思想政治工作을 強化시킨다.

넷째, 黨의 建設을 強化시킨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의 설정은 指導部の 향후 道路를 가늠하게 한다. 그것은 漸進的 改革派와 總體的 改革派의 기본 주장을 相互 排斥시킨 것이 아니라 折衷시킨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天安門 事態 해결과정에서 主導權을 장악한 漸進的 改革派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관철된 것이다. 이는 둘째 항목에서 兩派의 구호인 “治理整頓”과 “改革·開放”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면서, 나머지 항목에선 모두 指導部の 保守性을 강화시키

85) “中國共產黨第13屆中央委員會第14次全體會議公報(1989年6月24日 통과)”, 〈求是〉(제 13기, 7월 1일 발행, 총 25기, 1989), pp.2-3.

는 내용이 제시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趙의 問責과 연계된 인사조치는 漸進의 改革派가 得勢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中央 領導 機構의 구성원 조정은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中央委員會 委員에 江澤民, 宋平, 李瑞環 등이 增選되었으며, 호요방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직에서 免職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既存(13大)의 中央政治局常務委員會의 구성-趙紫陽, 李鵬, 喬石, 胡啓立, 姚依林-이 새로운 構成員인 江澤民, 李鵬, 姚依林, 喬石, 宋平, 李瑞環 등으로 再編되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조자양과 胡啓立을 각각 대신한 강택민과 李瑞環의 등장이다.⁸⁶⁾

그들은 天安門 事態가 발생하기 전에는 각각 黨 序列 8,10位의 政治局 委員이었다. 또한 둘 다 漸進的 改革派는 아니었음에도 序列이 1,6位로 급등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둘 다 철저히 鄧의 路線을 추구해 온 인물이다. 강택민은 上海市長으로 있으면서 上海를 中國의 金融中心地로 造成하고, 產業基地化에 소요되는 財源을 외국에서 끌어 들이는 등 改革政策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 鄧의 認定을 받아 왔다. 또한 革命烈士의 자제인 관계로 黨元老들의 信任을 받았는데, 특히 李先念과는 혈육지간 이상의 관계였다. 아울러 吳學謙, 喬石 등의 共青團 幹部 출신들에게는 建國 前에 함께 했던 地下黨 활동 관계로 인해 후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江은 指導部 내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한편, 李瑞環은 목공 노동자에서 출발하여 지도부구성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萬里 및 호요방과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따라서 호요방의 改革推進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으나, 호요방의 失脚에 즈음해서는 등소평의 意思에 맞춰

86) 양자의 논평에 관한 최신 글로는 다음이 있다. : 方雷純, “江澤民的思想, 才能與 領導風格”, 〈中國大陸研究〉(제33권, 제3기, '90.9), pp.6-15; “絕密文件: 鄧不准反

江”, 〈爭鳴〉('90년 9월호), pp.8-9; 鐘燕, “李瑞環與「保守派」之間的分派” 〈中共研究〉(제24권 제8기, 총284기, '90년 8월 15일), pp.11~16; 黎明, “李瑞環和意識形態之爭” 〈爭鳴〉('90년 8월호), pp.48~49.

대학생 示威에 強硬하게 對處하였다.⁸⁷⁾ 그는 대사에 이와 같이 鄧을 追從하였다.

둘째, 둘 다 天安門 事態에 강경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江澤民은 경제적으로는 陳雲과 趙紫陽의 사이에 있는 중간파이며, 정치적으로는 李鵬과 趙紫陽의 중간에서 약간 李鵬 쪽으로 치우친 인물이다.⁸⁸⁾ 이번 사태에서는 맨처음 上海의 示威 관련자 3명의 死刑을 執行함으로써 강경한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서환은 사태 발생 초기에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鄧小平·李鵬·楊尚昆 등의 強硬路線편이 점차 득세하자 시위대를 체포하고 교통 요충지와 학교·공장 등을 엄격히 통제하였다고 한다.⁸⁹⁾

결과적으로, 鄧小平은 漸進的 改革派와의 妥協을 통해 趙紫陽과 胡啓立의 후임으로 江澤民과 李瑞環을 등장시켜 놓음으로써 指導部내 分派간의 세력균형을 유지시켜 놓았다.⁹⁰⁾ 단, 天安門 事態의 해결을 통해 政局의 主導權이 漸進的 改革派에게로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變動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治理整頓”에 비중을 두고 점진적으로 “改革·開放”을 추진하자는 慎重論이 指導部 내에서 우세할 것이다. 그것은 江澤民 총서기의 建國 40周年 기념대회상의 演說⁹¹⁾에서도 엿볼 수 있다.

87) 1986년말 李瑞環은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발해 지도부 원로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政權은 몇천, 몇만의 鮮血로 얻어진 것이니 이 정권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鮮血를 흘려야 할 것이다. : 『中國 指導部 人名錄』, 국토통일원(1988년판).

88) 김정계, Op.Cit., p.98.

89) Ibid., p.215.

90) 13屆 4中全會에서 決定된 政治局 委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江澤民, 李鵬, 姚依林, 喬石, 宋平, (以上 政治局 常委 委員), 萬里, 田紀雲, 李鐵映, 秦紀偉, 楊尚昆, 吳學謙, 李錫銘, 楊汝岱.

91) 江澤民, “在中華人民共和國成立40周年大會上的講話(1989년 9월 29일)”, <求是> ('89년 제19기, 총31기, 10월 1일 출판), pp.2-12.

Ⅲ. 結 論 : 指導部の 變化와 改革의 進路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중국지도부의 내적 대립 및 갈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鄧체제 指導部는 성립 초기에 生産力 發展이라는 經濟的 目標을 設定하였다. 이는 발달된 社會主義 단계로 移行하기 위한 우선적·필수적 목표로 公認되었다. 그것을 위해 추진된 것이 “改革·開放” 정책이었다. 改革의 深化는 지도부 일각에서 資本主義的 病幣의 출현을 우려할 정도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이는 경제 주체들의 積極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경제 이론 및 “思想解放” 獎勵에 기인하였다. 總體的 改革派가 강조하는 상품경제의 발전은 인간 이익 관계에 價值規律이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결국에는 “經濟的 人間”(Economic Man : 자신의 利益을 保障받음으로써 近代 產業社會를 창조했던 인간 형태)을 창출할 것이다. 이는 漸進的 改革派가 가장 우려하는 資產階級의 등장과 ‘精神 汚染’을 의미한다. 그러한 改革의 副作用이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된 漸進的 改革派는 급속한 개혁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經濟的 目標의 추구가 體制의 安定을 위협하게 될 때 漸進的 改革派는 사회의 秩序維持를 내세워 理念的 目標을 強調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 그들은 四項 基本 原則으로 “새로운 人間”(New Man : 利己의 野心과 階級的 貪慾性을 초월한 인간 형태) 적 要素를 붙여 넣으려 한다. 즉,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現 지도부의 踏線은 改革·開放의 추진과 더불어 四項 基本 原則의 견지를 基本點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指導部 對立의 근본적 原因이다. 어느 지도부를 막론하고 완전 합일된 政策決定은 없기 마련이다. 두 기본점의 설정은

分派 共存을 위한 妥協策이므로 葛藤이 內在한다. 왜냐하면, 中國指導部の 공식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改革推進은 四項堅持에 구속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改革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指導部내의 대립은 내면적으로 理念的·經濟的 目標라는 2중적 체제 목표에 연유하고, 외면적으로는 개혁 상황에 대한 現實把握의 差에 연유한다. 이때 현실 파악의 중점은 社會秩序-社會主義 體制의 安定性 維持에 놓여진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指導部내의 對立·變化와 中國社會의 變化間에 相關 關係가 있음을 주장하게 한다. 즉, 指導部내의 主導權 變化는 體制 目標의 優先順位에 變化를 가져오며, 社會 제분야에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은 論旨에 근거하여 향후 中國政治의 變化를 長·短期로 나누어 展望하면 다음과 같다.

指導部가 추구하는 장기적 정책 목표는 “中國的 社會主義의 建設”이다. 이것은 生産力 發展을 통한 物質文明의 건설 못지 않게 社會主義 精神文明의 건설을 촉구하게 한다. 그러므로 “中國的 社會主義”건설이 包括하게 된 目標의 二重性은 지도부 내에 對立의 가능성을 常存시킨다. 즉, 改革·開放을 통한 現代化 政策을 추구하는 한, 指導部 內의 對立은 장기간 持續될 것이다. 한 동안의 總體的 改革·開放 推進은 다시 安定的 整理·整頓의 追求로 대체되며, 이것은 다시 可逆狀態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體制의 理念的·經濟的 目標가 완성되어 갈수록 점차 克服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改革에 대한 短期的 展望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中國 指導部는 그들 나름대로 그동안의 副作用을 치유하기 위해 社會의 政治的 安定과 經濟的 秩序·環境 등의 整理·整頓에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경제·사회 諸分野의 統制가 強化되고, 改革·開放의 速度와 範圍가 遲延·縮小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局面이 長期間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改革·開放 정책의 추진이 가져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가져와야 할 肯定的 成果物에 대하여 中國의 人民은 물론이려니

와, 指導部도 必須的인 것으로 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國際的 環境과 相應하여 改革정책의 逆進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지도부는 黨의 領導가 堅固해지도록 黨 建設을 確固히 하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요소가 일정 수준이하로 치유되면, 곧 改革·開放을 다시 금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또한 이에는 李鵬의 발언권 弱化和 江澤民의 입지 強化라는 조건이 充足될 때, 그 時機가 좀더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는 豫測을 조심스럽게 덧붙일 수 있다.